

군산과 함께한 화교 역사 돌아본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한국화교화인연구회, 31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오는 3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군산과 함께한 화교의 공간·음식,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물관과 한국화교화인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군산 지역 화교의 역사와 관련된 세미나, 토크쇼 등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 '군산 화교 다시읽기'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이후 군산에 정착한 화교의 생활공간 및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기독교 공동체와 중국음식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한 화교의 삶과 그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김중호 박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개항기 화교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경제·사회활동, 2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화교의 공동체 형성과 중국음식점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개항기 군산 각종 공동 거류지 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지은 강사는 군산 각종 거류지 설정과 관련된 계획 및 각종 공사 기록, 당시의 시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분석하며, 토론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동욱 연구위원이 맡는다.

이어서 '군산과 목포 화교를 중심으로 살펴



오는 3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군산과 함께한 화교의 공간·음식,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호남 화교의 경제·사회활동'이라는 주제로 세한대학교 양세영 교수가 발표한다. 양 교수는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화교의 진출과 활동이 두드러졌던 군산과 목포, 두 도시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각 지역 화교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밝힌다. 관련 토론은 <건축사사무소 강희재>의

손예 책임이 맡는다. 다음으로 '전라도 지역 화교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다변화'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혜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 교수는 전라도 지역에서의 중국인 기독교 선교에 대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밝히며, 한국전쟁 이후 중화교회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군산에 중화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토론은 광산대학교 이재근 교수가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지역 화교 중국음식점의 탄생과 발전과정'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전라도 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과정 및 경제적 안정화에 중국음식점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지역 화교음식점의 쇠퇴와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진 군산 화교음식점의 생존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관련된 토론은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와 계원예술대학교 교영 강사가 맡는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화교의 역사와 문화, 특히 군산 근대도시 형성 과정에서 화교 사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근대 문화도시 군산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31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 규장각실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063-454-78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무주사진가협회 관광홍보사진전 개최

9월 30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 로비서 23점 전시

무주반딧불축제 기념 제28회 무주사진가협회 관광홍보사진전이 오는 9월 30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무주사진가협회 도록

28일 시작된 전시회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에 담은 아름다운 명소들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덕유산 설경_이윤승"을 비롯해 "갈골 운문산반딧불이_맹갑성", "내도의 아침_변운섭", "구천동 인월담_이강우", "설전봉 만들레_김광웅", "덕유산의 봄_김덕성" 등 무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의 작품 23점이 전시된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윤승 회장은 "회원들이 무주 곳곳을 다니며 담은 자연경관과 국가

유산, 관광명소 등 다양한 작품들과 만나실 수 있다"며 "올해는 전시를 보시면서 새로 개원한 무주상상반디숲과 반딧불축제까지 1석 3조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마중관 새단장

한국전통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마중스퀘어'로 변경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마중관을 전통과 현대의 미를 담은 복합문화공간 '마중스퀘어'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공예를 보존하고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전시관 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공간인 마중관은 2018년 재개관 이후 판매관 내 위치해 포토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중관의 명칭을 '마중스퀘어'로 변경, 포토존뿐 아니라 전시와 각종 행사, 강연 등이 가능한 유동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한 것.

28일 전담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밭프로젝트를 활용한 공간을 연출하고 '풍류(風流)'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복(福)'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2025년 새해에는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전시관 캐릭터 호사원(호기로 온 호사원)의 변형 캐릭터와 굿즈 상품 전시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공예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주공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공예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리공예 무료 체험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9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유리공예 '유리장식(스테인드글라스) 냄비받침 만들기'를 9월 7일 오후 2시와 4시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

유리장식 '스테인드글라스'란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를 말하며, 주로 성당의 창문에 장식된 색유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무료체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유리공예는 원목 냄비 받침에 고래, 나비, 톨립, 네잎클로버 등 중심이 되는 유리장식을 선택한 후 가지각색의 조각유리를 원하는 대로 골라 배경을 채워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유리와 유리의 사이에 간격을 두고 붙여 장식하고, 유리가 날카로우 수 있으니 핀셋을 사용해 붙이면서 빗몸은 시멘트 반죽으로 채워 마무리하는 과정을 배운다. /장은성 기자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31일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 개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오는 31일, 제21회 악성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거문고는 예로부터 백악지장이라 칭하는 일백 가지 악기 중에서 최고의 악기로 불리던 현악기로, 악성 옥보고 선생은 신라 경덕왕 때 육두품에 속하는 귀족이었음에도 거문고를 들고 지리산의 운상원(지금의 남원 운봉)에 들어가 50여년 동안 거문고를 연구하고, 30여 곡이 넘는 거문고 가락을 작곡해 우리 음악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남원시와 (사)악성옥보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뜻을 기리고 전통국악을 널리 발전 보급시키기 위해 거문고를 배우는 학생과 연주자들에게 서로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대회는 명인부,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신인부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악기장의 거문고 제작 시연, 거문고 연주 체험, 거문고 모형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 관계자는 "거문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많이 참여해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맘껏 뽐내었으면 한다"며, 국악을 사랑하는 관객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PCO·여행사 초청 전라권 공동 팸투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7~2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 MICE협회 및 한국 PCO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라권 연계 공동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권 마이스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이스 주요 시설 투어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팸투어에 참여한 전국 PCO 및 여행사 30명은 27일 광주에서부터 28일 군산을 거쳐 29일 무주 태원도원까지 방문한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도내 주요 컨벤션 시설과 유니크베뉴 탐방을 테마로 정하고, 군산전시컨벤션센터(지스코)와 덕유산리조트, 무주태



권도원 소개를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마이스 시설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군산, 무주 등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향후 마이스 유치와 연계한 포스트 투어 일정까지 기획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